

취업 주부의 취업선호 인식이 개인, 가족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perceived by
working wives on personal, family, & work life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정훈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수 박성옥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어은주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

Associate Prof. : Jung Hoon, Kim

Dept. of Home Management Taejon Univ.

Assistant Prof. : Sung Ok, Park

Dept. of Housing,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

Doctorial Course : Eun Joo, Eo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와 해석 |
| II. 관련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understand the types of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of husbands and wives, and to explore the differences in the personal, the family, and the job-related variables regarding such types of preferences. For this study, the employed housewives with children aged under 10 year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 1) Types of per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of husbands were smaller compared to wives'. This may mean that

husbands' traditional values related to child rearing and education, and housework influenced on their preferences to wives' employment. 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ypes of preferences to housewives' employment regarding the types of wives' occupation. Wives working in the white color jobs were preferred themselves' employment more than wives working in the blue color jobs. 3) The group that both wives and husbands prefer housewives' employment was more positively perceived the effects of women's employment on both wives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Also such couples were satisfied more than and felt family-job strain less than other groups.

1. 서론

1. 문제제기

여성 취업,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증가 경향은 현대 사회 어디에서나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대 경제생활에서 소비 생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실제 소비 생활비의 증가로 소득 증대 욕구와 필요가 높아짐에 따른 필요적 요구와 출산율의 감소, 여성 교육 수준 증대,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 증대, 사회의 여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따른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라는 선택적 요구에 의한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의 경제 발전에 따른 노동력 수요의 증가 역시 여성의 취업율 증가시키는 상황 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상황은 여성 취업의 필요적 요구와 여성 자신들의 사회 참여 요구와 같은 선택적 요구는 높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상황적 변수들은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즉 가정에서는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이 가정에서의 전통적 역할 수행을 전제로 침가되는 부수적인 역할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대가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주부에게 취업자(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선택적으로만 인정하려는 태도가 팽배하여 주부의 취업으로 인한 역할분담이나 역할수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회에서도 여성의 노동력을 요구하면서도 여성이 취업하기 위한 장기적인 조건을 마련

하지 않고 있어서 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부담은 오직 여성, 개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취업을 계속하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는 여성을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으로 양분하여 각각의 능력과 가치를 부당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성들 자신조차 노동 시장 참여와 가정에서의 역할수행간에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이중 역할의 수행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족한 역할수행에 대한 자책감으로 여성의 역할 수행은 노동자로서나, 가사인으로서나 생산성에 문제를 발생시키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성, 남편의 경우, 맞벌이를 원하는 남성이 증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여성의 역할을 가사에 우선적으로 묶어 놓는 이중적 사고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도, 여성의 취업은 자신의 취업 욕구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 가정의 경제적 요구나 사회의 '능력 있는 여성'이라는 강요된 가치관에 의한 강요적 선택인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여성 취업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와 요구는 많은 가정에서 주부의 취업 계속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취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주부가 취업을 하는 문제에 대해 주부 자신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여성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건전한 가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평등,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현재와 미래의 생산적 노동력을 확보, 유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의 취업에 대해 부인과 남편 각각의 주부의 취업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이러한 선호가 개인, 가족 및 직업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2. 연구문제

위의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주부 취업에 대한 부부의 취업선호의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막내자녀의 취학여부, 가족형태, 직업유형에 따라, 주부취업에 대한 부부의 취업선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부부의 취업선호는 개인, 가족 및 직업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개념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취업선호: 현재 취업모의 가정에서 주부와 남편이 주부의 취업을 원 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의미한다.
- 2) 성취, 소득지향성: 성취지향성은 직장을 가짐으로서 직업에서의 성공, 경력과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욕구와 같은 심리적 면을 추구하는 것이며, 소득지향성은 직업에서의 경력이나 성공보다는 경제적 이득이 우선 되는 개념이다.
- 3) 자녀에 대한 애정, 부담적 가치: 자녀에 대한 애정적 가치는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심리적 만족감(안정감, 사랑, 사랑, 가족 결속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부담적 가치는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과 육체적인 작업, 기회상실 등의 심리적 부담감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4) 이중 역할긴장: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가운데,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역할기대 및 역할양립불가능으로 인해 어떤 역할 내에서 압력을 경험하는 정도를 뜻한다.

II. 관련 연구의 고찰

1. 취업선호

일반적으로 여성의 취업은 자기 개발과 기여감, 경제적 수입이라는 긍정적인 결과(기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시간을 가정과 직장 생활로 배분하므로써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의 수정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취업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원 모두에게 역할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측면에 대해 취업 여성 본인과 그 가족들이 평가하는 비용과 이익은 여성의 취업결정과 그에 따른 직업 역할과 가정내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Turchi, 1975; Waite & Stolzenberg, 1976; Cramer, 1980; Becker, 1981; 문숙재 외 2인, 1994).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나, 부인의 '남편이 자신의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주부의 노동시장참여 정도에 대한 강한 예측변수가 되며, 마찬가지로 부인 자신의 취업에 대한 태도가 남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Spitz & Waite, 1981)고 한다. Yogev(1987)는 직업-가정역할에 대한 남편과 부인이 가진 가치관과 인식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직장과 가정생활에 대한 부부의 참여정도를 중심으로 부부 모두 가정생활에 참여가 높은 유형, 부인은 가정생활에 참여가 높고 남편은 낮은 유형(전통적 유형), 부인은 가정생활에 참여가

1) 개인, 가족 및 직업생활에 대해 본 연구자는 ① 주부의 성취지향성과 소득지향성 ② 남편의 심리·행동적 지지 ③ 자신의 취업이 자녀와 자신에게 주는 영향 인식 ④ 자녀의 애정, 부담적 가치변인 ⑤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 ⑥ 이중 역할 긴장도 변인을 설정하였음.

낮고 남편은 참여가 높은 유형, 부부 모두 가정생활에 참여가 낮은 유형을 제시하였다. 남편과 부인의 직업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주부의 취업과 관련시킨 Bird는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맞벌이 가족에서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부부의 아내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취업 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경우에 각각 적용하여 부부 모두 원하는 형, 아내 자신만 원하는 형, 남편만 원하는 형, 부부 모두 원하지 않는 형의 8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Schiller, 1979).

특히 전통적 가정 생활의 경향이 강한 한국 가정에서는 이들 요인 중에서 여성의 취업 결정과 그 역할 수행은 자신과 남편이 여성 자신의 취업에 대해 갖는 태도가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남편과 자신이 취업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갖는가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결과적으로 바람직하고, 조화로운 역할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2. 취업선호에 따른 개인, 가족, 직업생활

지금껏 기혼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취업여부 자체만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갖은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취업선호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또한 주부 취업에 대한 아내 자신과 남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부부의 취업선호에 초점을 둔 국내 선행연구도 찾기 어렵다.

1) 개인생활

Baruch, Barnett와 Rivers(1983)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그 역할이 전업주부이든, 취업주부이든간에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고, 덜 불안해하고 덜 우울해 여성취업과 관련된 연구에서 취업에 대한 선호가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업선호에 대해 다룬 연구 중 Ross 등(1983)은 직업갖기를 위해서 취업을 한 주부가 원하지 않는데도

취업을 한 주부에 비해 우울함을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Hock과 DeMeis(1990)는 취업상태와 취업선호도 사이의 갈등을 파악한 결과, 취업상태와 선호사이의 불일치가 우울증 증후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박성옥(1993)은 취업을 선호하면서 취업상태에 있는 취업모에 비해 취업을 원하지 않는 비취업모의 경우, 자녀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덜 불안해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정빈, 정혜정(1986)은 취업동기를 크게 경제적 이유, 자기발전도모, 사회활동희망으로 분류하여 역할갈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을 한 주부가 가장 역할갈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Voydanoff와 Kelly(1984)는 막내자녀가 6세 이하이거나 취학하고 있을 때 부모가 시간부족에서 오는 역할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1985년의 연구에서도 막내자녀연령과 직업긴장은 의미있는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갈등 요인은 주부의 취업선호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가족생활

주부 취업의 선호와 관련된 가족 특성으로 배우자의 지지, 가족형태, 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정서적인 지원이 높고 배우자의 취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닐 때, 부인과 남편 모두 역할갈등이 줄어들고(Holahan & Gilbert, 1979; 임정빈, 정혜정, 1986),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이외 가족원의 지원은 맞벌이가족에서 직업과 관련된 가족문제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Skinner, 1980; Voydanoff & Kelly, 1984).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나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박성옥(1993)은 자녀에 대해 애정적인 가치가 높을수록, 취업이 자녀발달에 부정적인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는 주부일수록 자녀와의 격리상태에서 훨씬 높은 불안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곧 주부의 취업선호에 배우자의 지원이나 태도, 확대가족과 같은 가족의 지원, 자녀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가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3) 직업생활

주부취업선호와 관련된 변수로는 근무시간, 근무의 융통성, 직무만족, 직업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주부의 직업변수는 그 직종에 따라 소득 외에 각 근무시간과 근무의 융통성 등이 달라지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며, 주부 취업으로 인한 역할갈등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며, 주부 취업선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연숙 외(1991), 이현아(1994), 임혜경(1994) 등은 과도한 노동시간의 요구가 직업/가정갈등을 일으키는 주원천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연하게 근무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주부들은 역할양립의 불가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다 덜 경험한다고 한다(Kelly & Voydanoff, 1984; 구혜령, 1991; 임혜경, 1994). 또한 Vodanoff와 Kelly (1984)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관련지어 자신이 중

사하는 직업에 만족할수록 역할갈등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Thompson과 Waker(1989)에 따르면, 비전문직 주부는 주로 경제적인 동기로 취업을 하게 되므로 남편들도 아내를 공동부양자로 보며 이는 가정에서의 책임수행의 평등으로 이어지지만, 전문직 주부의 남편들은 가정책임의 공유에 지지적이지 않다고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²⁾

본 연구의 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여성(358명)으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즉 조사대상자들 중 부인 경우에 비해 남편의 연령과 학력이 상대적으로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내용	대상 통계치		남 편		부 인	
		N	%	N	%		
연 령	30세 이하	26	7.6	93	27.4		
	31 ~ 35세	135	39.6	152	44.7		
	36세 이상	180	52.8	95	27.9		
학 력	고졸이하	80	22.9	153	44.0		
	대졸이상	269	77.1	195	56.0		
직 업	전 문 직	77	21.5	80	22.3		
	사 무 직	181	50.6	161	45.3		
	기술·숙련직	77	21.5	96	26.8		
가족유형	핵 가족	205		57.3			
	확대가족	98		27.4			
	기 타	43		12.0			
월평균 가계 총소득	150만원 이하	63		19.1			
	150 ~ 200	128		38.9			
	201 ~ 250	57		17.3			
	251 ~ 300	49		14.9			
	301만원 이상	32		9.7			

2) 본 연구대상은 박성옥, 김정훈(1995)의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연구에서 수행된 대상과 동일함.

높은 비율을 보이며, 직업은 남편이나 부인 모두 사무직이 50.6%, 45.3%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계 총소득은 150~200만원이 38.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개인(주부의 성취·소득 지향성), 가족(남편의 심리·행동적 지지, 자신의 취업이 자녀와 자신에게 주는 영향, 자녀의 애정, 부담적 가치) 및 직업(현 직장 만족도, 이중역할긴장)생활과 관련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선호는 부인의 지각을 중심으로 부인 자신과 남편이 현재 주부의 취업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조합하여 다음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부 모두 원하는 형, 아내 자신만 원하는 형, 남편만 원하는 형, 부부 모두 원하지 않는 형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성취·소득지향성은 5점 Likert type의 척도로 구성된 Career Salience questionnaire (Greenhaus, 1971)중에서 본 연구 성격에 적합한 8문항으로 조사하였고(신뢰도계수 $\alpha=.54$), 셋째, 남편의 심리적 지지와 행동적 지지는 4점 Likert type 척도로 본 연구자가 11문항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신뢰도계수 $\alpha=.86$), 넷째, 자신의 취업이 자녀와 자신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3점 Likert type 척도로 된 Farel(1980)이 개발한 척도의 일부 문항(8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68$). 다섯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5점 Likert type 척도로서 Arnold와 그의 동료들(1975)이 개발한 The Value of Children 척도 중에서 애정적, 부담적 가치 개념을 측정하는 일부 문항(10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68$). 여섯째, 직장만족도는 5점 Likert type 척도로 된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Porter 등, 1974)중에서 5문항을 사용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86$), 일곱째, 역할긴장은 5점 Likert type 척도로서 Job-family role strain (Bohen과 Viveros-

Long, 1981)척도를 사용하였다(신뢰도계수 $\alpha=.76$). Likert type으로 측정된 변수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변수들의 긍정적 경향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단 자녀의 부담적 가치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로 인하여 경제적, 시간사용 등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큰 것으로 측정되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199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의 선정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지역에서 다양한 직업의 분포를 갖도록 직장을 단위로 임의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조사대상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설명하게 한 후에 자기보고식 설문내용은 응답자가 직접 기입토록 하고, 이 중 일부 설문내용은 면접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를 이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취업선호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은 산출하였고, 또한 변인별로 취업선호의 유의성 검증은 위해서는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부의 취업선호에 따라 개인, 가족 및 직무관련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비모수통계의 Mann-Whitney 검정과 Kruskal-Wallis ANOVA를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와 해석

1. 주부취업에 대한 부부의 선호

다음 <표 2>에 나타난 취업선호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취업 주부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취업을 원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67.9%는 남편이 자신의 취업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30.2%는 남편

3) 취업선호의 각 사례수의 차이가 커서, 모수통계 대신 비모수통계를 적용하였음.

〈표 2〉 주부 취업에 대한 남편과 부인의 선호 경향

유 형	전 체		유 형	부 인		남 편	
	N	%		N	%	N	%
둘다 원한다	229	67.0	원한다	323	92.6	243	69.2
부인만 원한다	90	26.3	원하지 않는다	26	7.4	108	30.8
남편만 원한다	9	2.6					
둘다 원하지 않는다	14	4.1					
계	342	100.0	계	349	100.0	351	100.0

Note: 전체 사례수가 다른 것은 무응답의 경우가 각각 다르기 때문임.

이 자신이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부 둘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67.0%였고, 남편은 원하지 않고, 부인 자신만 취업을 원하는 경우는 26.3%였다. 여기에서 두사람 다 원하지 않는 경우는 불과 4.1%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여년간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여, 총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1975년 39.6%에서 1987년에는 45.1%로 나타나고 있으며(경제기획원, 1976, 1987), 단순히 취업여성의 증가 뿐 아니라 취업여성 중 유배우자의 비율이 62.2%를 차지함으로써 전국적으로 411만명의 기혼여성이 취업하고 있는 사실(박숙자, 1990)과 여성개발연구원의 조사(1991)에 따르면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의 취업욕구가 조사대상의 66.1%나 된다는 측면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이유가 자아실현, 능력개발 등의 심리적 측면이거나, 아니면 소득증대 등에 대한 경제적 측면이든 간에 기혼여성의 취업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주부취업에 대해 부부의 선호가 높은 이유로는 첫째, 교육수준의 상승 및 수요증가로 시장임금율이 높아지며, 둘째, 출산율의 감소와 탁아시설 및 각종 노동 절약적인 가전제품의 보급 등으로 가사노동의 대체가능성이 높아지고 셋째, 여성의 취업 내지 가정내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막내자녀 취학여부, 가족형태, 직업유형에 따른 주부취업선호

주부취업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막내자녀의 취학여부, 가족형태, 직업유형에 따라 부부의 취업선호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먼저 직업유형에 따라서 부인과 남편의 경우 각각 주부의 취업선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기술·숙련직에 비해 사무직이나 전문직인 경우에 부부 모두가 주부의 취업에 대해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비교되어 있는 기술·숙련직과 사무직, 그리고 전문직들이 각 직종에 따라 직무조건(근무시간의 융통성, 소득, 근로조건 등)이 다르고, 주부들(여성들)의 취업동기의 우선순위(경제적 필요, 자기발전, 시간적 여유, 노후보장 등)가 각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에 관련된 연구(황한식, 1993)와 일치되는 결과로서, 이에 따른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의 역할수행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직업유형 외에 살펴본 막내자녀 취학여부와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수치상의 차이는 적으나 이 두 변인에 따른 주부 취업선호는 현 우리나라의 여건상 앞으로 취업을 원하는 대다수의 주부에게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 해석을 부연하고자 한

〈표 3〉 주부 취업에 대한 막내자녀 취학여부, 가족형태, 직업유형별 선호

변인		대상		남편	
		부인취업에 대한 선호		원한다	
		원한다 (N= 323)	원하지 않는다 (N= 26)	원한다 (N= 243)	원하지 않는다 (N= 108)
막내자녀 취학여부	취학전	197(98.3)	13(6.2)	152(71.4)	61(28.6)
	취학후	115(89.8)	13(10.2)	86(67.2)	42(32.8)
통 계 치		$\chi^2=1.25$	n.s.	$\chi^2=.48$	n.s.
가족 형태	핵 가족	186(93.0)	14(7.0)	146(72.3)	56(27.7)
	확대가족	90(94.7)	5(5.3)	65(66.3)	33(33.7)
	기 타	36(85.7)	6(14.3)	27(65.9)	14(4.1)
통 계 치		$\chi^2=3.58$	n.s.	$\chi^2=1.45$	n.s.
직업 유형	기술, 숙련직	80(86.0)	13(14.0)	54(57.4)	40(42.6)
	사무직	150(94.9)	8(5.1)	115(72.8)	43(27.2)
	전문직	75(96.1)	3(3.9)	67(82.5)	14(17.5)
통 계 치		$\chi^2=8.76^{**}$		$\chi^2=14.14^{***}$	

** p<.05 *** p<.01

N(%)

다. 즉 자녀가 취학하기 전에 비해 취학 후에 주부 취업선호가 다소 더 낮은 결과는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호 및 지도에 대한 제도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과 상대적으로 늘어난 학습과제수행, 생활습관형성 등의 어려움이 주부의 취업선호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부인의 경우 남편과 달리 확대가족일때 취업선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구조상 시부모를 모시는 확대가족의 경우, 부인은 가사와 육아조력자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반면, 남편의 경우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는 관점에서 부인의 가정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3. 취업선호에 따른 개인, 가족 및 직업생활 차이

1) 부인의 취업선호에 따른 차이

부인의 취업 선호에 따라 개인,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Mann-Whitney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의 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취업선호여부에 따라 성취지향성, 취업이 자신과 자녀에게 주는 영향, 남편의 행동적 지지, 현직장 만족도, 이중 역할 긴장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스스로 취업을 원하여 취업하고 있는 부인이 취업을 원하지 않으면서 취업하고 있는 부인보다 직업에서의 성취 지향성이 높았으며, 또한 자신의 취업에 아이와 자신에 대한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은 보다 높은 남편의 행동적 지지도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 직장에 대해서도 보다 만족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수행하는데 따른 이중 역할 수행 긴장감이 이들 취업을 원하여 취업하고 있는 주부의 경우가 낮게 나타났다.

2) 남편의 주부취업선호에 따른 차이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따라 부인이 경험하게 되는 개인, 가족 및 직업관련 변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ann-Whitney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부인자신의 취업선호에 따른 차이

관련변인		취업선호성	원한다 (N=323)	원하지 않는다 (N= 26)	z 값
		통계치	Mean Rank	Mean Rank	
개 인	성취 지향성		178.05	123.98	-2.662***
	소득 지향성		174.02	187.13	n.s.
가 족	자신의 취업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		180.13	104.77	-3.826****
	자신의 취업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179.83	89.17	-4.505****
직 업	남편의 심리적 지지		174.68	145.83	n.s.
	남편의 행동적 지지		175.73	139.48	-1.780*
	자녀의 애정적 가치		174.24	157.81	n.s.
	자녀의 부담적 가치		169.97	183.52	n.s.
직 업	현직장 만족도		173.36	132.81	-1.954*
	이중 역할 긴장도		164.47	201.11	-1.765*

* p<.10 *** p<.01 **** p<.001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인의 성취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 즉 부인의 소득 지향성, 자신의 취업이 자신과 아이에게 주는 영향과 남편의 심리적·행동적 지지, 자녀의 애정적·부담적 가치, 부인의 현직장 만족도, 이중 역할 긴장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원하는 상태에서 취업하고 있는 주부들의 경우 남편이 부인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하고 있는 주부들에 비해 남편의 심리적, 행동적 지지를 보다 많이 받고 있었으며, 현재 직장에 대해 보다 만족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자신의 취업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

〈표 5〉 부인에 대한 남편의 취업선호에 따른 차이

관련변인		취업선호성	원한다 (N=243)	원하지 않는다 (N=108)	z 값
		통계치	Mean Rank	Mean Rank	
개 인	성취 지향성		177.74	170.47	n.s.
	소득 지향성		170.07	189.33	-1.655*
	자신의 취업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		182.69	159.16	-2.089**
가 족	자신의 취업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184.09	151.36	-2.837***
	남편의 심리적 지지		195.71	119.67	-6.580****
	남편의 행동적 지지		184.43	150.28	-2.951****
	자녀의 애정적 가치		168.65	187.68	-1.636*
직 업	자녀의 부담적 가치		164.74	188.02	-2.025**
	현 직장 만족도		183.14	148.61	-2.981****
	이중 역할 긴장도		153.60	199.99	-4.064****

* p<.10 ** p<.05 *** p<.01 **** p<.001

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득 지향성은 남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취업하고 있는 주부가 더 높았고, 직장과 가정의 이중 역할 수행으로 인한 긴장감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 남편이 원하지 않는데 취업하고 있는 주부들이 남편이 원하는 상황에서 취업하는 주부보다 자녀를 보다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로 느끼는 애정적 가치가 높은 반면, 자녀를 자신의 생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측면도 높게 나타났다.

3) 부부의 주부취업선택에 따른 차이

부인의 취업에 대한 부부의 선택은 앞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다 원하는 경우가 67.0%, 부인만 원하는 경우가 26.3%인데 비해, 남편만 원하거나 둘다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너무 빈도수가 적어(2.6%와 4.1%), 비모수통계의 Kruskal-Wallis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6>에서 나타나듯이, 부부의 주

부 취업에 대한 선호에 따라 성취, 소득 지향성과 자녀의 부담적 가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심리적, 행동적 지지, 그리고 현재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부부가 모두 부인의 취업을 원할 때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따른 역할 부담의 긴장도는 부부 모두 취업을 원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부인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 주부취업이 자녀와 본인에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또한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 대한 애정적 가치를 높게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많은 시간과 교육 등에 시간을 빼앗기는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표 6> 부부의 주부취업선택에 따른 차이

관련변인		부부취업선택성		남편만 원한다 (N= 9)	모두원하지 않는다 (N= 14)	χ^2
		부부모두 원한다 (N=229)	부인만 원한다 (N=90)			
		통계치 Mean Rank	Mean Rank	Mean Rank	Mean Rank	
개 인	성취 지향성	175.10	171.58	114.06	137.18	n.s.
	소득 지향성	164.39	186.67	177.94	186.11	n.s.
	자신의 취업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	181.15	160.73	71.39	134.32	14.519***
가 족	자신의 취업이 아이에게 주는 영향	183.28	156.12	68.72	96.86	23.472****
	남편의 심리적 지지	193.94	111.84	151.17	137.21	46.885****
	남편의 행동적 지지	181.93	145.90	104.72	157.89	12.962***
	자녀의 애정적 가치	168.81	178.55	94.56	183.39	6.305*
	자녀의 부담적 가치	160.07	183.49	199.61	162.96	n.s.
직 업	현 직장 만족도	180.68	144.35	126.89	139.85	11.869**
	이중 역할 긴장도	148.39	193.87	183.50	204.08	17.391****

* p<.10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둔 주부의 취업에 대한 부인과 남편 각각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러한 취업선호가 개인, 가족 및 직업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편과 부인 모두 주부의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러한 선호는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할 경우에 아이에게나, 자신에게 취업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심리적, 행동적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의 현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면서 겪는 이중 역할 긴장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과 더불어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직장생활을 지속하고자 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또 이러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지지하는 남성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부인이나 남편이 주부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각각 90.2%, 67.9%에 달하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취업은 부인 개인적으로도 성취지향적 욕구가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이 경향은 남편이나 부인이 주부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부인의 소득 욕구가 크다는 사실을 볼 때, 가족 전체적으로는 성취지향적 욕구보다는 소득 지향적 욕구 때문에, 즉 가계의 소득 욕구에 의해 여성 취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성의 취업이 가계의 소득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때) 남편과 부인이 모두 원해서 주부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 비해, 다른 형태의 취업 선호에서는 남편의 지지가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남편만 주부의 취업을 원한 경우에 행동적 지지가 심리적 지지보다 낮다는 것은 이 경우가 여성의 직장 만족도도 가장 낮다는 것과 비교할 때 여성의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긴장감을 높이는 상승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본 연구 결과, 취업 주부의 역할 긴장도가 남편만 원하는 경우보다 부인만 원하는 경우가 더 높다는 사실로도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부의 취업이 주부 개인의 욕구뿐 아니라 가계 전체의 욕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그에 따르는 가정과 직장의 역할 수행이 주부 개인에게 집중되어 요구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일 것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취업주부의 이중 역할 수행은 주부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가족 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원 특히 남편의 구체적인 행동적 지원이 취업 주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우선적인 과제로 여겨진다.

둘째, 남편과 부인이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자녀의 애정적 가치가 가장 높았고, 막내자녀가 취학하기 전보다 오히려 취학한 후에 주부의 취업 선호가 떨어지는 본 연구 결과는 자녀가 주부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자녀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이승미(198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단 취업상태에 놓여 있는 현 조사대상자의 경우 주부 자신의 취업에 대해 대체로 자기 자신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취업 주부의 현 직장 만족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취업 여성이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취업의 영향에서의 긍정적 측면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슬기로운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오늘날 여성의 취업 욕구와 기혼 여성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들과 연관지어 볼 때 취업 여성의 직장생활 지속을 위한 직장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직업 유형에 따라 부인이나 남편 모두 취업 선

호에 차이가 나타나는 결과는 이같은 필요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박성옥, 김정훈(1995)의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융통성 있는 근무시간제, 월차나 외출의 제도적 보장, 직장 탁아 제도와 그 질적 향상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노동 시장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 시장에서의 이러한 제도 시행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제일 목적 추구에 의해 한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남녀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기업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기업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강제적 법률이나 정책 제정과 감시 노력들 -산전 산후 출산 휴가와 부모의 유아휴직제 보장, 직장 탁아의 양적, 질적 측면의 강화, 남녀의 고용평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들을 통해 이러한 제도들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탁아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인력 확충도 주부의 노동력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미래의 생산적 노동력으로서의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통해 사회와 가정의 복지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경희(1985). 한국 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역할대처 전략,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 경제기획원(1976). 경제활동연구연보.
- 4) 경제기획원(1987). 한국통계월보.
- 5)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역(1994).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서울: 학지사.
- 6)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7) 박숙자(1990). 한국여성, 일 그리고 탁아, 탁아와 유아교육세미나.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 8) 이연숙, 유가효, 이순형, 조재순(1991). 기혼취업 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 생활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9) 이현아(1994). 남편의 생활시간구조와 가정생활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0)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11) 임혜경(1994). 취업주부의 직업, 가정갈등, 가사노동 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 만족간의 인과관계, 한양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12)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3) 박성옥, 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5), 13-26.
- 14)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15) 황한식(1993).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영유아보육서비스.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편), 21세기의 영유아보육(pp. 93-132). 서울: 한울.
- 16) Arnold, F., Bualtao, R.A., Buripakdi, C., Chung, B.J., Fawcett, J.T., Iritani, T., Lee, S.T., & Wu, T.S.(1975). The value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introduction & comparative analysis. Vol.1, Honolulu, HI: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17) Becker, G.S.(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ss: Harvard Uni. Press.
- 18) Boben, H.H., & Viveros-Long, A.(1981). Balancing jobs and family life: Do flexible work schedules help? Temple Uni. press.
- 19) Baruch, G., Barnett, R., & Rivers, C.(1983). Lifefprints: New patterns of love work for today's women. N.Y.: McGraw-Hill.
- 20) Cramer, J.C.(1980).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5, 167-190.

- 21) Farel, A.M.(1980). Employment and sociodemographic status on school adjustment an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1, 1179-1186.
- 22) Greenhaus, J.H.(1971). An investigation of the role of career salience in vocational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 209-216.
- 23) Hock, E. & DeMeis, D.K.(1990). Depression in mothers of infants : The role of maternal employment. *Development Psychology*, 26, 285-291.
- 24) Holahan, C.K., & Gilbert, L.A.(1979). Conflict between major life roles : Women and men in dual career couples. *Human Relations*, 32, 451-468.
- 25) Porter, L.W., Steers, R.M., Mowday, R.T. and Boulian, P.V.(1974).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 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5), 603-609.
- 26) Ross, C.E., Mirowsky, J. & Huver, J.(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809-823.
- 27) Schiller, M.K.(1979). Financial counseling for dual income families' in financial counseling : Assessing the state of the art edited by D.C. Myhre the proceedings of a national conference sponsored by the financial counseling project, Held at The Donalfson-Brown Center for Countinuing Education,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burg, Virginia, May 30-June 2, 113-119.
- 28) Skinner, D.A.(1980). Dual-family stress and coping :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473-481.
- 29) Spitze, G.D. & Waite, L.J.(1981). Wives' employment : The role of husbands' perceived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117-124.
- 30) Thompson, L. & Walker, A.J.(1989).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A. Booth(ed.), *Contemporary families : Looking forward-looking back*. NCFR, 79-101.
- 31) Turchi, B.A.(1975). Micro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A Critique Social Forces*, 54, 107-125.
- 32) Voydanoff, P. & Kelly, R.F.(1984). Determinants of work-related family. Problem Among Employed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881-892.
- 33) Waite, L.J. & Stolzenberg, R.M.(1976). Intended childbearing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235-252.
- 34) Yogev, S.(1987). Integration of work and family among dual-earner couples : A conceptual viewpoint. *Family Perspective*, 21(2), 77-91.